

음악교육동향*

제48회 여름학술대회 보고서

최은아(신구로초)

1. 개요

한국음악교육학회는 2017년 8월 10일 목요일과 8월 11일 금요일 이틀 동안 중앙대학교 R&D 센터에서 ‘미래사회를 대비한 음악교육’을 주제로 제48회 여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음악교육학자와 전문가, 유·초·중등 현장교사 및 예비교사 180여명이 참가한 여름학술대회에서는 음악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내용과 현장적용 사례 등이 발표·논의되었다. 무엇보다 본 여름학술대회에서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흐름과 그에 따른 교육의 변화 속에서 음악교육의 역할을 돌아보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또한 여러 주제의 연구논문과 포스터 발표, 워크숍과 우수수업 사례 발표 및 교사학습 공동체 사례 발표, 학교 오케스트라 연주회 등을 통해 음악교육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들과 교류를 이룰 수 있었다.

2. 세부내용

1) 기조강연 및 초청강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맡은 김경자 명예교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정 작업을 이끈 입장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비전·방향과 총론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우리가 속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이에 따른 음악교과의 역할과 책무를 인식·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기조강연을 맡은 홍후조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음악교육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변화하는 문명 속에서 공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해야하며, 계열성과 균형성 확보를 고려한 종합과

* 서평 또는 논문평, 콜로키움 및 학술대회 보고, 연구 동향 등을 소개함.

절충을 통해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하고, 음악교과 또한 같은 맥락에서 통합적 방향으로 나가야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초청강연을 맡은 이준 교수는 “음악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창의성 교육의 제안”을 통해 최근 음악교육공학 경향을 개관하고, 테크놀로지와의 융합을 통해 음악에서의 다양한 유희성과 창의성을 확장시킬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각각의 강연 후에는 참가자들과의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보다 넓은 지평에서 음악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성찰해볼 수 있었다.

2) 워크숍 및 우수수업 사례 발표와 교사학습공동체 사례 발표

워크숍과 우수수업사례는 다음과 같이 크게 4영역에서 서로 연관성을 갖고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다.

	워크숍	우수수업 사례 발표
신체움직임	무보를 통한 움직임 창작의 새로운 접근	유아들을 위한 음악과 움직임의 통합지도 방안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연습 방법	학교오케스트라 운영의 실제
합창	청소년들을 위한 합창철학	중등학교에서의 합창수업의 실제
국악기연주	소금연주하기	학생들과 신명나게 풍물 연주하기

워크숍을 통해서 각 영역에 대한 음악교육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며, 우수수업사례발표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실제와 함께 현장적용상의 어려운 점 등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의 자발적·실천적 교사학습공동체의 의의와 비전을 제시한 “교사학습공동체 사례 발표”는 음악교육 학자 및 전문가와 현장교사의 교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3) 연구논문 및 포스터 발표

본 학술대회에서는 총30개의 논문과 5개의 포스터가 발표되었다. 연구논문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음악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구체적인 지도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발표되었다.

음악교육의 방향	‘2030년 미래 사회 대비 음악과의 교육방향 및 과제 분석’, ‘융합교육적 관점에서 보는 학교 음악교육 방향’,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세계 음악의 교육적 전망’
연구동향	‘음악교육의 연구동향-창의성, 적성, 인성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연구 동향’
교육과정 및 역량	‘독일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활동 주제 구성’, ‘음악과 역량과 성취기준 간의 연관성 분석’, ‘교육과정 시기별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의 중요 수용 양상 연구’
교사·예비 교사	‘예비음악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 탐구’, ‘예비음악교사지식연구’, ‘초등예비교사의 음악실기스트레스와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음악교과 수업에 나타나는 교수 행동 양식에 대한 시사점 고찰’
음악실기 교육	‘음악실기 교육에서 성취목표유형과 그룹연습이 자기효능감과 연주 및 연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창모델과 독창, 제창방식이 노래 부르기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장기적 관점에서 본 미래를 위한 조기 악기교육의 가치와 혜택’
창작교육	‘창의 융합적 사고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음악창작교육의 방향’, ‘나도 작곡가: 초보 그룹을 위한 작곡 입문 사례’, ‘합의적 평가기법을 이용한 한국과 미국 교사들의 음악창작평가 비교연구’
음악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 설계	‘몬트리알과 하이드의 만남을 통한 초등학교 예술통합 수업 사례’, ‘음악적 문해력 신장을 위한 수업 설계 방안’, ‘Flipped learning 원리를 사용한 토론·토의 학습개발’, ‘대중음악 밴드를 활용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 ‘도외지역 초등학교의 방과후 음악교육’, ‘소금교수법’
문화적 접근	‘한·중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나타난 전통음악문화 전승 비교 연구’, ‘세계 전래 자장가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콘텐츠’
연구방법	‘한국의 음악교육학 연구에 있어 질적 연구의 위치와 의미론 관한 일고찰’
기타	‘옥타브에 담긴 뜻’, ‘학교 음악교육프로그램이 ADHD 성향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사운드 스케이프를 활용한 음악의 생활화 확장 가능성 제고’

포스터 세션에서는 4개의 영유아 관련 연구(‘유아를 위한 음악극 공연 활동이 예비유아교사의 동작교수불안과 동작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아음악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유아기의 음악적 경험을 위한 음악적 환경에 대한 고찰’, ‘만2세 영아의 자발적인 음악행동 탐색’)와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4) 음악회

음악회에서는 본 학술대회에서 “학교오케스트라 운영의 실제”를 발표한 구성선 교사의 지휘로 신암초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였다. 교육부지정 교육복지 거

점학교인 학교에서 수익자 부담 없이 운영되며 2011년에 창단한 이래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꾸준히 발전해온 신암초 오케스트라의 정성어린 연주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와 같이 음악교육학자와 전문가, 현장교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교육분야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연구한 것을 공유하고, 음악교육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나눈 여름학술대회는 배움과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와 같았다. 앞으로도 여름학술대회가 음악교육 관련 연구결과를 나누고 현장적용 방안을 탐색하며 방향성을 논의하는 대화와 토론의 장(場)으로서 한국음악교육학회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